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안 가결

제2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9월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벌였다. 개회 첫 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허미향 의원은 '한통건업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재검토 및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제안', 김철현 의원은 '한통건업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재검토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14일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순)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백석민 의원은 '24시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강건우 의원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제2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함.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지방의회 승인을 요구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암동 청사 건립)(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암동 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사진으로 보는 의정소식

운영위원회 안건심사 지난 13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를 했다.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를 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순)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남구의회 제265회 정례회 개회사

서민경제 활성화로 남구에 활력을

이 강 영
남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인해 올해 여름나기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청명한 가을의 문턱에서 제26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회기가 없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속에서 각종 행사와 지역구의 민생현안 해결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폭염 그늘막 설치와 태풍대비 비상근무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는 참신성과 경륜을 조화롭게 이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지향적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예산집행에 낭비요인이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2주 뒤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교통대책과 물가 안정, 그리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명절이면 더욱 더 쓸쓸해지는 소외계층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더 한층 박차를 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남구 의원 모두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점 심해지는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둥근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올 추석에도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전반기 부산 구·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에 이강영 의장 선출

제8대 전반기 첫 월례회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9월 월례회가 서구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남구의회 이강영 의장은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출됐다. 회장에는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 부회장에는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 서구의회 이석희 의장, 사무총장에 사하구의회 전원석 의장, 감사에는 수영구의회 박경옥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협의회는 각 구·군의회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보와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증진에 노력하는 등 협의회 발전에 한목소리를 낼 것을 결의하였다.

남구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 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남구의회사무국(☎607-6521~6)으로 문의.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

5분 자유발언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도입해야

허 미 향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

지난 8월11일, 감만동 동항초등학교 앞과 한통건업 부산레미콘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감만·용당 주민 약 2,500명의 1차 반대집회를 벌였고 8월 28일에는 남구청 앞에서 주민 500명의 2차 반대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통건업 레미콘 공장부지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전용공업지역이며 2017년 1월 5일자로 건축허가되어 현재 공정률이 96%라고 합니다.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 허가 절차 시, 주민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몰래 공사를 벌여 96%이상 지어질 동안 레미콘공장인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미콘공장이 건립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비산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며, 1급 발암 물질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은 앞으로 주민 수 감소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감만·용당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주거·생존권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의 공장을 허가해 준 남구청에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건축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대형건축물 등 인·허가시 인근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미리 알려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구현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내에 건축물의 층수가 지상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의 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건축물 등을 인·허가할 때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예정지의 가설울타리나 구청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건축규모, 공사예정기간, 의견제출 절차 등이 포함된 '건축인·허가관련 주민의 견수렴 안내문'을 붙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심의·조정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2005년 10월 20일부터 건축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건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축주와 주민의 상호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도 건축 허가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을 파악, 해결할 경우 민원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4시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검토를

백 석 민 의원
(문현1·2·3·4)

살기 좋은 우리 남구의 인구는 28만명에서 곧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 부산의 주축이 될 것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더욱 높아져 인근의 해운대구보다 살림살이가 더욱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주민의 민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화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남구는 민원행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그 개선점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 공무원은 7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포함하여 야간 당직자는 3명이고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를 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7년 9월 1일에서 2018년 8월 31까지 1년간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한 민원접수건은 2166건으로 월평균 180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야간 민원요청 시 당직근무자의 대답은 "내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가 대부분이었고, 지금 당장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는 '동물사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야간근무를 더 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긴급을 요하는 민원은 관련 기관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제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구는 3국 1실 19과 및 보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부서는 교통행정과이며 생활민원이 많은 곳은 안전도시과, 환경위생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야간·일요일·공휴일에 즉시 민원이 해결되도록 24시 민원 기동처리반을 만들어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구정 슬로건에 맞게 28만 남구 구민이 공휴일 및 야간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원 24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 중 빈도가 높은 민원사항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민원은 교통 주차문제이며 다음으로 보안등, 가로등 수리·교체입니다. 보안등의 경우 정비가 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면 보수팀이 출동하는 시스템보다는 민원발생 전 사전에 정비가 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행하여, 야간 생활민원이 많은 부서일수록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평정에 대해 가점 등의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28만 구민을 위하여 더욱 더 봉사하는 자세로 내 집,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면 더욱 더 남구가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사람이 희망이다' 슬로건에 맞게 노력합시다.

감만동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재검토해야

김 철 현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

남구의 감만·용당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통건업 레미콘 공장에 대해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건립허가를 내준 남구청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6%인 한통건업 레미콘 공장은 남구 감만동에 총면적 2,999㎡, 5층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감만·용당 주민들은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2,500여 주민이 건립반대를 위한 반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감만·용당 주민들은 덤프트럭과 컨테이너, 레미콘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 진동, 시멘트 가루로 인해 한여름에 창문조차 열 수 없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인구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지금 이 실정에 레미콘 공장의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게다가 한통건업은 공사 초기부터 가림막으로 현장을 가려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아닌 아스콘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역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개탄스러운 것은, 유사사례로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장성군청이 레미콘 공장 민원을 처리한 태도와 남구청의 행태가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내 추가로 레미콘 공장 신설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시멘트공장이 건립된 후 40년 넘게 소음과 분진 공해로 고통받아온 주민 심정을 공감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결국 공장 증축신청을 불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남구청 측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건축허가 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적정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들의 생명권, 재산권을 위해서 한통건업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것을 남구청에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레미콘 공장 건설을 방치하여 영구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구청장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결에 구정 역량 모아야

강 건 우 의원
(용호2·3·4)

2018년 8월 기준 남구의 등록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9만9735대입니다. 주차시설은 주거지전용 1538면, 공영주차장 371면, 민영주차장 5384면, 부설주차장 8만9291면으로 총9만6584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이미 99%를 넘었음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주차문제로 힘들어 합니다. 이는 외부인 이용이 불가한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합쳐 6%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민을 옥죄이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밀착형 생활형SOC인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밀착 생활형SOC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우리 남구가 예산을 신청, 확보하고 고지대와 주거지가 밀집된 주차난 심화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민간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평일 저녁이나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 상권과 저지대 교통혼잡 지역에는 병원과 대형마트, 아파트,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등 숨어있는 주차장 발굴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재개발 등 사업 시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운동장, 공원, 간선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장기 대안으로 함께 제시합니다.

넷째, IT환경 기반의 스마트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의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어플이 있습니다. 주차공간 공유 플랫폼으로 집 앞, 회사, 교회, 학교 등 비어있는 주차공간 소유자나 운영자가 앱을 통해 주차공간을 시간대별로 공유하면 운전자는 이를 손쉽게 찾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상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